어떠한 환난도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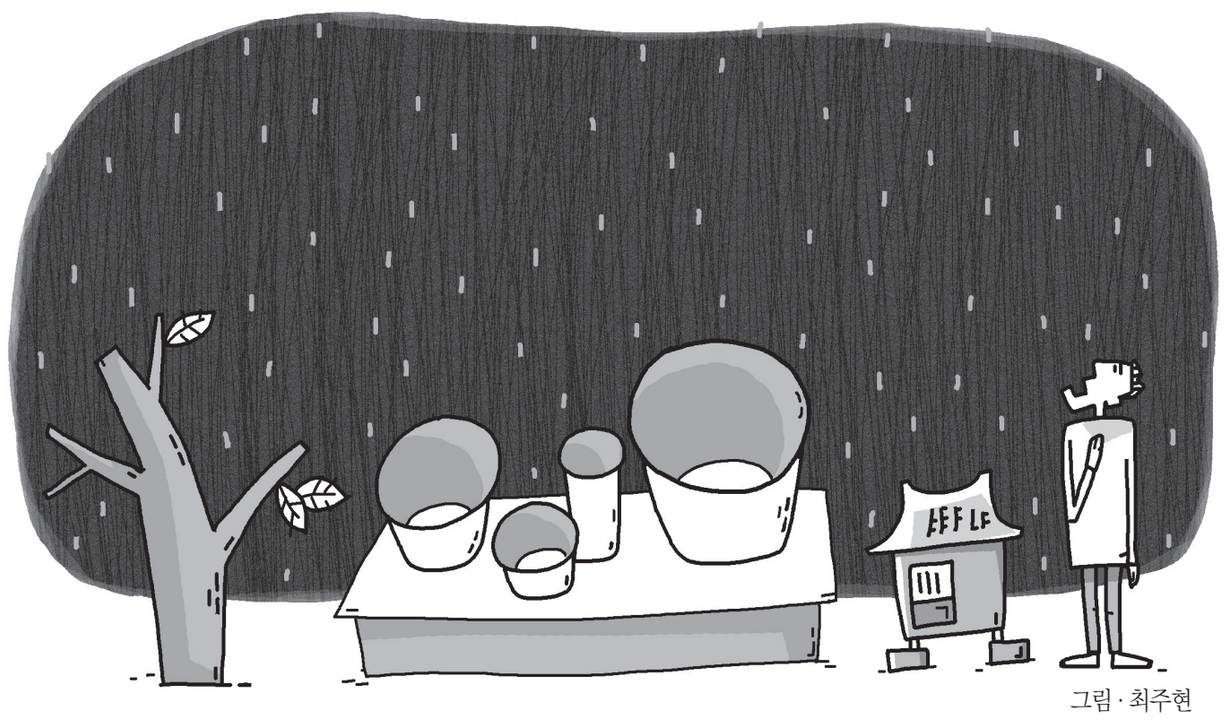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신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 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회사를 하니까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사장이 됐으니깐 차도 타야 하고, 사장이 됐으니깐 '나'라는 모가지가 뻣뻣하게 그냥 굳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수그릴 줄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 보니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장에 그냥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홀딱 다 넘어가고 자기 들어 있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나올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은 자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이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돌봐 주면서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는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내 밥내도 못 맡게 됩니다.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벌레가 돼서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치욕적인 고(苦)입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데 벌레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고가 많단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 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금방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까지 다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뭘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다 앉혀서 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비 틀리는 대로 그것을 집어간 사람이 비비 틀린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그 농촌에서 무엇을 아마 크게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깐 그 마을에서 전부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는 고양이를 시루에다 앉히고는 쪘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손주를 봤는데, 머리는 고양이고 몸뚱이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묻어 버린 예가 있다 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렇게 묻어 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아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의 근본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데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모르는 게 그냥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도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정진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상대를 놓고 하면 안 되고, 또 내면으로라도 '해 주시오' 하고 상대를,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당신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 주시오' 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관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관세음이라고,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자면 네가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들이고 내고, 이게 모두 네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딱 드잡아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섰다 하면, 지팡이가 완전히 섰다 하면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도, 그게 전부 업식인데, 업식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큰 에너지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허,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 봤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행동이 그렇게 돼야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거웁고 좀 색다르게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도 부딪치기도 하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전전긍긍하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증오하고….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제 아비를 닮아서 저렇지!" 또 아버지는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싹을 망쳐 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배움에 따라서 종교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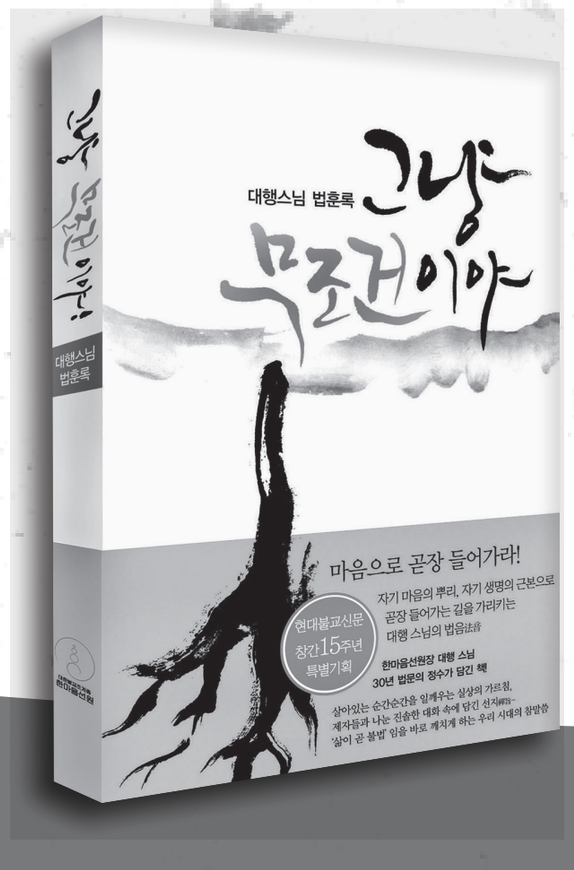
우리가 종교를, 어디 가서 남편이 잘되게 빈다, 자식이 잘되게 빈다 하고서 산기도를 무슨 백일을 한다, 천 번을 절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그러죠. 천 번 절한 것도 바로 일정례에 속한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둘 아니게 한다면, 만 번 하는 것보다 일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들을 다 그냥 정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기도 간답시고 멸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고기도 한 칼 안 먹이면서 "백 일 동안은 먹지 맙시다." 하고선 그냥 다 안 먹이고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백 일이 일 초가 될 수 있어요, 일 초! 일 초가 모르면 백 일이고, 백 일이 만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 생각을 잘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고, 절룩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 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좀 보세요. 우리가 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세음이라고 그런 게 지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만물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관(觀)! 그래서 볼 때에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질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 그 나무 한 그루도 어떤 거는 목신(木神)이 인사를 해요.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신처럼, 세상에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